

#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Maternal Variables that Influenc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최 정 미\*

Choi, Jung Mi

### Abstract

This research delineated variables of maternal influenc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sample consisted of 287 pairs of 5th/6th grade students, their mothers, and 8 classroom teachers in Gwangju City. Analysis included factors of mother's adult attachment, marriage adjustment, affection in child-rearing,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ffectionate child-rearing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contributing to child's social competence, followed by mother's education, close attachment, income, and anxiety attachment, in that order. These maternal variables accounted for 18% of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성인기 애착(adult attachment), 애정적 양육행동(affectionate child-rearing), 결혼적응(marriage adjustment)

---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12일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E-mail : shuma523@hanmail.net

## I. 서론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적으로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며(Connolly & Bruner, 1974; White, 1959)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O'Malley, 1977) 내용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적응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능력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행동들이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이며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며 사회적 능력의 연구가 사회적 발달을 보다 완전한 형태 즉, 인간 행동의 통합된 영역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는 점들 들 수 있다(O'Malley, 1977).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아동자신의 특성이나 또래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생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거의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사회적 능력은 청년기나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Maccoby & Martin, 1983; Pettit, Dodge & Brown, 1988)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많은 사회적 행동 패턴을 가족에게서 배우게 되는데(Maccoby & Martin, 1983), 특히 어머니

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Ladd & Golter, 1988; MacDonald & Parke, 1984; Pettit, Dodge & Brown, 1988).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나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높여 주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육행동의 여러 차원 중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높다고 가장 많이 보고된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공인숙, 1989;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어머니의 결혼적응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oldberg & Easterbrooks, 1984; Howes & Markman, 1989)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적응이 낮을 때 어머니와 유아간의 애착이 불안정하였을 뿐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rossman, Eichler와 Winickoff(1980)는 부모의 결혼적응점수가 Bayley scale로 측정된 영아의 능력점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olden과 Ritche(1991)는 부부관계의 질이 2-8세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다. Jenkins와 Smith(1991)는 외적으로 표현된 부부간의 갈등이 그들 아동의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능력발달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으며(박성연, 1992)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가 있다(노명희·이숙, 1992).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아동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맥락에서 어머니의 결혼적응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애착은 성인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국내 연구들(유은희, 1991; 유은희·박성연, 1989; 조병은 외, 1996)에서 성인기 애착은 전생애에 걸쳐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생애 발달적 견해에 의하면 초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 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성인기 때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Sroufe & Waters, 1977). 이는 내적 실행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Bowlby (1982)에 따르면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고 반응하는 거름장치를 형성한다고 한다.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내는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owlby (1973)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적 항상성(representational homeostasis)'에 가장 적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행동은 부모의 기대에 맞추도록 미묘하게 형성화된다. 그러므로 아동기 경험에 대한 부모의 개념화 유형 즉 내적 실행모델은 자신의 자녀와의 실제행동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의 애착관계의 전이와 그것의 반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파악한 조병은 외(1995)의 연구

에서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기의 애착이 안정적이었던 집단은 보다 자기 의존적이고 불안과 적대감 수준이 낮으며, 가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애착상실집단은 자아 회복력(ego-resiliency)이 낮고 또래로부터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유은희, 1991; Bretherton et al, 1991; Cicirelli, 1983; Sroufe, 1985) 청년기 이후에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발달할수록 청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유은희, 1993; Cicirelli, 1983). 그러나 국내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갖는 중요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즉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아와 어린 유아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거나(김숙령, 1997; 박용임, 1995; 이영환, 1993; 장미자, 1998; 최해훈, 1997; 홍계옥, 1995; 홍계옥·최경순, 1996),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성인기 애착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박성연, 1988; 유은희, 1991; 유은희·박성연, 1989; 조병은 외, 1995, 1996). 성인기 애착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부부나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2가지 접근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보고되고 있는데(강수진, 1995; 김영지, 1994; 안재연, 1992; 양정선, 1997; 조병은 외, 1995; 조은영, 1996; Gottman et al, 1975) 이러한 어머니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을 규명하고, 어머니 관련변인들(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결혼적응,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관련 변인(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결혼적응,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의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어머니 320쌍과 담임교사 8명(8학급)으로 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한 287명의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서 이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 있어 남아 53.7%(154명), 여아 46.3%(133명)이었고, 아동의 학년은 5학년이 52.6%(151명), 6학년은 47.4%(136명)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40세 미만이 67.6%(194명), 만40-49세는 32.1%(92명), 만50세 이상은 0.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57.5%(165명), 대학교 졸업 이상 28.2%(81명), 중학교 졸업 이하 14.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은 100-199만원 50.9%(146명), 200-299만원 23.3%(67명), 100만원 이하 13.6%(39명), 300만원 이상 12.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와 또래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 1) 성인기 애착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애착을 조사하기 위하여 Collins와 Read(1990)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의존(depend),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3요인을 설정하였다. 각 요인에 6개 문항씩 총 18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기 애착 질문지의 요인에 대한 정의는 ① 의존(depend)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② 불안(anxiety) :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과 밀착된 관계를 지나치게 원한다. ③ 친밀(close) :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하게 느끼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념적으로 분류했던 것과 같은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어서 총 16문항으로 된 검사도구가 사용되었다. 각 요인 별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의존(6문항)이 .68, 불안(5문항)이 .73, 친밀(5문항)이 .63으로 나타났다.

### 2) 애정적 양육행동 측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이숙(199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애정적 양육행동 척도(7문

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4로 나타났다.

### 3) 결혼적응 측정

어머니의 결혼적응 질문지는 Spanier(1976)의 DAS(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를 참고로 하여 만족(7문항), 일치(6문항), 응집(4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런 편이다'의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결혼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가 .90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검사도구는 Buss와 Plomin(1984), Cassidy와 Asher(1992), Cheek와 Buss(1981), Kohn과 Rosman(1972) 그리고 도현심(199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회참여도 3문항, 사교성 4문항, 인기/지도력 4문항, 대인적응성 3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평가는 교사평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교사용에서 사용된 하위 요인과 문항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급내 동성의 명단을 주어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동성의 또래가 평가하게 하였다. 교사와 또래평가간의 상관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는 SAS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alpha$  계수, 요인분석,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선정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요인,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3.74), 결혼적응(3.64), 친밀애착요인(3.48), 아동의 사회적 능력(3.48), 의존애착요인(3.08)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요인의 점수(2.12)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및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일 때 애정적 양육행동 및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영선, 1991; 안재연, 1992; 윤현선, 1984; 이숙, 1986; 이영주, 1990; 이희숙, 1984; 한중혜, 1980; 허은주, 1988; Jones, Rickel & Smith, 1980; 김정아, 1990; 김지신, 1996; 노명희, 1995; 조병은 외, 1995; Ford, 1982; Gesten, 1976)과 일치한다.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및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참조).

<표 1> 어머니 교육수준과 가정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N=287)

변인	구분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		
		M	D	F	M	D	F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24.32		B	45.68		B
	고등학교 졸업	26.45	A	4.12*	48.58	A	8.08***
	대학교 졸업이상	26.64		A	50.78		A
가정 소득	100만원 미만	24.69			48.28		
	100-199만원	26.45	1.63		48.97	0.13	
	200-299만원	26.36			48.84		
	300만원 이상	26.54			48.49		

D : Duncan's \*p<.05 \*\*\*p<.001

####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결혼적응,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표 3>참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애정적 양육행동(PR2=.08), 어머니의 교육수준(PR2=.05), 친밀애착요인(PR2=.02), 가정의 소득(PR2=.02), 불안애착요인(PR2=.01)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표 2〉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어머니 교육수준							
2. 가정의 소득	.46***						
3. 의존애착요인	.11	.10					
4. 불안애착요인	-.02	-.11	.20***				
5. 친밀애착요인	.15*	.06	.20***	-.11			
6. 결혼적응	.11	.23***	.03	-.38***	.33***		
7. 애정적 양육행동	.14*	.09	-.01	.00	.03	.16**	
8. 아동의 사회적 능력	.26***	.02	.09	-.12*	.18**	.13**	.29***

\*p<.05 \*\*p<.01 \*\*\*p<.001

〈표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PR <sup>2</sup>	R <sup>2</sup>	STB(β)	F	전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애정적 양육행동	.08	.08	.26	26.11***	R <sup>2</sup> = .18 F=12.19***
	어머니 교육수준	.05	.13	.27	15.43***	
	친밀애착요인	.02	.15	.13	6.87**	
	가정의 소득	.02	.17	.15	4.70*	
	불안애착요인	.01	.18	-.11	4.31*	

\*p<.05 \*\*p<.01 \*\*\*p<.001

치고 있었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변인들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18%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공인숙, 1989; 이원영, 1983;

Baumrind & Black, 1967; Cohn, 1990; Dekovic & Janssens, 1992; MacDonald & Park, 1984; Putallaz, 1987)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강수진, 1995; 장영애, 1987; 전숙자, 1984; 조병은 외 1995; 조은영,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소득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영지, 1994; 박응임, 1988; 이혜영, 1986; 장영애, 1987)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어머니 관련변인 중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과 애정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선정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요인,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 결혼적응, 친밀애착요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의존애착요인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요인의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조병은 외, 199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리자가 되고, 사회화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친밀애착요인, 가정의 소득, 불안애착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공인숙, 1989; 김지신, 1996; 이원영, 1983; Baruch & Barnett, 1981;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Hoffman & Saltzstein, 1967; Lieberman, 1977; Pettit, Dodge & Brown, 1988; Rutherford & Mussen, 1968)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 자체의 높고 낮음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과 호기심을 격려



하는 중류계층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못지 않게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정의 소득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지는 경험이나 자극의 질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요인 중에서 친밀애착 요인과 불안애착요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의 애착관계의 전이와 그것의 반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파악한 조병은 외(1995)의 연구에서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중요함을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들에게 대인관계의 모델로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때 세대 전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교육수준이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행동 및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어머니 자신의 특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가 안정적인 성인기 애착 유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분석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시킨 연구가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애정적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등과 같은 본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어머니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다루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수진(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영선(1991). 청각장애아모와 일반아모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명희·이숙(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노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1988). 母의 결혼관계와 母-기혼자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이화여자대학교), 54, 211-233.
- 박성연(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한국문화연구원 논총(이화여자대학교), 61(2), 305-329.
- 박용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박성연(1989). 母子간의 애착 母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夫婦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 149-162.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1993). 부모 자녀 관계와 수험생 자녀의 학업성취, 현대사회와 가족문제-한국가족의 자녀교육열과 가족의 대처방안. 학술진흥지원연구.
-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4), 199-207.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이영환(1993). 낮은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숙(1984).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자녀양육에서의 역할 참여 및 수행도와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87).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인과모형분석. 아동학회지, 8(2), 17-44.
- 전숙자(1984).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송의논총(송의여전), 7.
-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용임(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조병은·유은희·이정순·최혜경(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1.
-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최해훈(1997).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은주(1988).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Baruch, G. K., & R. C. Barnett(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 Black A.E.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 Basic.
- Bretherton, I., Biringen, Z., & Ridgeway, D. (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mer & K. McCartney(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pp. 1-24) NJ : Lawrence- Erlbaum.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id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815-825.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nnolly, K., & Bruner(1974). Competence : Its nature and nursery. *The growth of competence*, 3(7). London : Academic Press.
- Dekovic, M., & Janssens, J. M. A.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esten, E. L. (1976). A health resource inventory :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5), 775-786.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The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Grossman, F. K., Eichler, L. S., & Winickoff, S. A. (1980). *Pregnancy, birth, and parenthood*.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5-47.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wes, P., & Markman, H. J.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nes, D. C., Rickel, A. U. & Smith, R. 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 Psychology*, 16(3), 241-24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hn, M., & Ros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30-444.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ed. by E. M. Hetherington. NY : Wiley.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1), 29-44.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utherford, E., & Mussen, P. H. (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 Schaefer, E. S., & Bayley, N. (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 A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